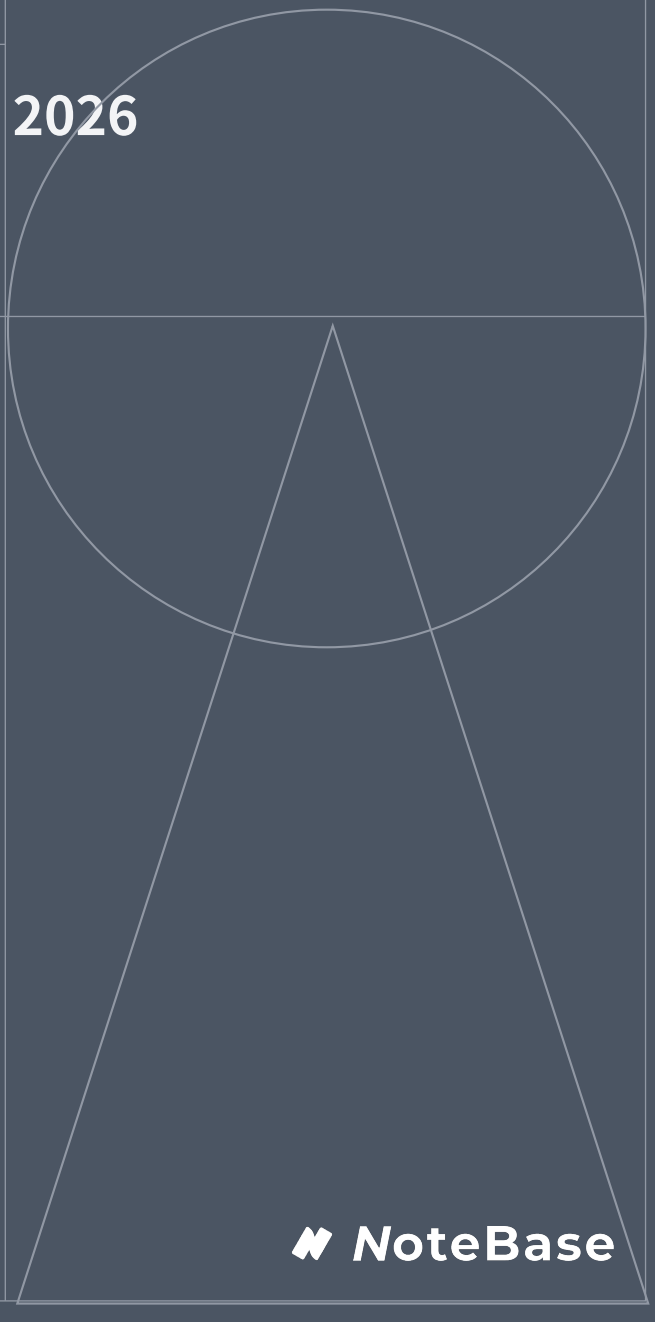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6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6

문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명사의 반복된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할 것.
◯ 대등한 것끼리 연결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올바른 피동 표현을 사용할 것.
◯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말 것.

<공문서>
◯◯시청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교육 안내

1.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여러분의 원활한 적응을 기원합니다.

2. 부서별 ㉠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 내용에는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의 축소 방안이 포함됩니다.

3.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져 있으며, 수강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이번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청서 ㉣ 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① ㉠: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②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
③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④ ㉣: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정답 2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의 수정안은 '편의 확대'라는 명사구와 '불편을 축소하는'이라는 용언 구성을 연결하여 **대등한 표현의 구조가 여전히 다르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을 축소하는 방안'처럼 두 부분의 구조를 맞추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은 명사를 연이어 나열하여 단어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고치면 **조사 '의'와 '을', '위한'을 사용**하여 누구의 업무 적응인지,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드러낼 수 있다.

② X: ㉡의 수정안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는 명사구이고, '불편을 축소하는'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갖춘 용언 구성이다. 이를 '와'로 연결하면 **대등한 두 부분의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고쳐 '편의를 확대하다'와 '불편을 축소하다'가 같은 구조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③ O: ㉢의 '계획되어져'는 '계획되다'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다시 붙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계획되어 있으며'로 고치면 피동 표현을 겹쳐 쓰지 않으면서 교육이 계획된 상태라는 뜻을 전달한다.

④ O: ㉣의 '엄수하다'는 규칙이나 기한 등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여기에 '반드시'를 덧붙이면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반드시'를 삭제**한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가 제시된 원칙에 맞는다.

NoteBase

문 2. (가) ~ (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 정독을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부동자세를 취해야 한다. 근대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 도서관과 같은 근대적 공간에서 책 읽는 자세를 집단적으로 훈련하며 정독에 익숙해져 갔다.
(나) 책에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구두점·띄어쓰기의 도입과 더불어 문자를 보충하는 여러 부호가 삽입되는 등 새로운 편집 형식이 등장한 것이다.
(다) 근대 시기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입으로 외워서 연기하듯이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꼼꼼하게 단어들을 읽으며 문장의 의미를 파헤쳐 가는 방식, 즉 정독으로 이행해 갔다. 이런 책 읽기 방식에는 책을 읽기 위한 공간과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했다.
(라)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어 내는 독서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독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 편집 기술이 발전하고 편집 형식이 변화했다.

① (다) - (가) - (라) - (나)
② (다) - (라) - (가) - (나)
③ (라) - (나) - (가) - (다)
④ (라) - (다) - (가) - (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의 '정독에 익숙해져 갔다'는 훈련 과정이 (라)의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로 이어진다. (라)가 편집 형식의 변화를 제시하면, (나)가 사진·그림·구두점·띄어쓰기 등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가) → (라) → (나)

(다): 암송 중심의 책 읽기가 문장의 의미를 꼼꼼히 파악하는 정독으로 바뀌었다는 전체 화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문장에서 정독에 필요한 공간과 자세를 언급하여 뒤에 이어질 설명의 대상을 마련한다.

(가): (다)에서 언급한 **공간과 자세를 구체화**한다. 조용한 공간과 부동자세를 제시하고, 가정·학교·도서관에서 자세를 훈련하며 정독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라): '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가)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 다음에 놓여야 한다. 이어 읽는 속도가 빨라져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는 방식이 나타났고, 이에 맞추어 편집 기술과 형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나): 사진·그림의 삽입, 구두점·띄어쓰기의 도입, 여러 부호의 삽입을 제시한다. 이는 (라) 끝의 **'편집 형식이 변화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편집 형식의 변화를 언급한 (라) 뒤에 이어진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기호는 어떤 대상과 일정한 의미가 결합한 것이다. 기호는 대상과 의미, 즉 기표와 기의의 관련성에 따라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상징적 기호로 나뉜다. 도상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이 있는 기호이고, 지표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기호이다. 반면 상징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관습적일 뿐, 시각적 유사성이나 실제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호이다.
예를 들어 신호등 체계는 대표적인 (가)의 사례이다. 신호등에서 빨강은 '멈춰라', 초록은 '가라'를 의미하는데, 색채라는 시각적 기표가 그것의 기의와 실제적인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다른 색깔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모티콘 '^^'는 웃는 얼굴과 닮았기 때문에 '웃음'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모습을 그려 냈기 때문에 (나)의 사례이다. 곰이 지나간 흔적인 곰 발자국을 보고 사냥꾼이 곰을 쫓게 되었다면, 그 발자국은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과 인과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의 예이다.

① (가): 도상적 기호, (나): 상징적 기호, (다): 지표적 기호
② (가): 도상적 기호, (나): 지표적 기호, (다): 상징적 기호
③ (가): 상징적 기호, (나): 도상적 기호, (다): 지표적 기호
④ (가): 상징적 기호, (나): 지표적 기호, (다): 도상적 기호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신호등의 색과 '멈춰라·가라'라는 의미는 서로 닮거나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으로 결합하므로 상징적 기호이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상징적 기호: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관습적으로 정해진** 기호이다. 신호등의 빨강과 초록이 각각 '멈춰라'와 '가라'를 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색 자체가 멈추거나 가는 행동과 닮은 것도 아니고, 그 행동과 인과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다. 다른 색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설명 역시 이 관계가 관습에 따른 것임을 보여 준다.

(나) 도상적 기호: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이 있는 기호이다. 이모티콘 '^^'는 웃는 얼굴을 닮아 웃음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지도는 영토의 모습을 닮게 그려 그 영토를 나타낸다. 눈에 보이는 기호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나타내려는 대상과 형태가 닮았다는 점이 분류의 근거이다.

(다) 지표적 기호: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기호이다. 곰 발자국은 곰이 지나가며 남긴 흔적이므로, 발자국의 존재를 통해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곰의 모습을 닮게 그린 그림이나 임의로 정한 표시가 아니라 곰의 이동으로 생긴 흔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따라서 (가)는 상징적 기호, (나)는 도상적 기호, (다)는 지표적 기호이며, 이 대응은 ③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침>
◯ 서론은 핵심 개념과 연구 목표를 제시할 것.
◯ 본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하위 절은 각 장의 제목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구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요>
◯ 제목: 귀농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 전략
1장 서론
1절 귀농 청년의 개념
2절 (가)
2장 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
1절 스마트팜 창업 및 임대 농장 보조금 지원
2절 (나)
3장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
1절 초기 정착을 위한 입주비 지원
2절 (다)
4장 결론
1절 귀농 청년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
2절 (라)

① (가): 귀농 청년의 창업·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② (나): 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③ (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
④ (라):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는 경작할 땅을 늘리는 방안이므로 **주거 지원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에는 미사용 주택을 정비하여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서론의 2절이므로 연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귀농 청년의 창업·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은 무엇을 연구하려는지 밝히고, 본론의 두 장에서 다룰 창업 지원과 주거 지원을 함께 포괄하므로 **연구 목표**에 부합한다.

② O: (나)는 '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을 다루는 2장의 하위 절이다. 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한 멘토링은 귀농 청년이 창업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얻도록 돕는 방안이다. 따라서 **창업 지원이라는 장의 주제**에 맞으며, 같은 장의 보조금 지원 방안과도 통일성을 이룬다.

③ X: (다)는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을 다루는 3장의 하위 절이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땅을 늘리는 방안**이므로 장의 제목과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다. '미사용 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 공간 확보'처럼 귀농 청년의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해야 한다. 4장 1절의 '귀농 청년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은 지원 전략의 기대 효과이고, (라)의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이므로 지침의 순서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5.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 기체는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액체, 고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액체이고, 고체는 그 부피가 가장 작다. 그러나 물은 예외이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커지고 ㉡고체인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진다.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데 이때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로 나와 있다.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의 부피는 고체였을 때 빙산의 부피보다 약간 작다. 수면 위로 나와 있던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이, 낮아진 해수면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결국 ㉢해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육지에 있는데, 빙산이 녹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육지의 빙하도 녹게 된다.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빙하가 녹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바닷물 자체도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① ㉠: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작다

② ㉡: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③ ㉢: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④ ㉣: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그러나 물은 예외이다'라는 문장에 따르면 물은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진다**. 뒤에서도 빙산이 녹으면 부피가 작아진다고 하므로, ㉡의 '부피가 작아진다'를 '부피가 커진다'로 고쳐야 문맥이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은 같은 물질의 질량이 동일할 때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피가 작다'로 바꾸면 뒤의 설명과 모순된다. ㉠은 원래의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를 유지해야 한다.

② O: '그러나 물은 예외이다'는 물이 일반적인 물질과 달리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원래의 ㉡은 얼음이 되면 부피가 작아진다고 하여 일반적인 물질과 같은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뒤에서도 빙산이 녹아 생긴 물의 부피가 빙산일 때보다 작다고 설명하므로, 그 반대 변화인 물의 결빙에서는 부피가 커져야 한다. 따라서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로 고치면 앞뒤 내용이 일치한다.

③ X: 둘째 문단은 바다에 떠 있던 빙산이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수면 위에 있던 부분이 녹아 생긴 물이 낮아진 해수면만큼을 채운다고 설명한다. '결국' 뒤에는 이 설명의 결론이 와야 하므로 **'해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를 유지해야 한다. 해수면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수정은 이 인과 관계에 맞지 않는다.

④ X: 마지막 문단은 기온 상승에 따라 육지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도 열팽창하여 해수면이 높아지는 상황을 설명한다. 따라서 같은 상황을 이어 주는 조건인 **'빙하가 녹을 정도의 기온이라면'**을 유지해야 한다.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로 바꾸면 앞서 설명한 온난화 상황과의 연결이 어색해진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묶어서 부르는 성명은 하나의 고유 명사라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에 붙여 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선-우주', '남-궁수'인지 '선우-주',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우 주'나 '남궁 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써야 한다.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② '최서현'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 군'으로 쓴다.

③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김구'로 써야 한다.

④ '허초희'의 호인 '난설헌'을 성 '허' 뒤에 쓸 때 '허난설헌'으로 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황보영'은 성이 '황'인지 '황보'인지 혼동될 수 있다.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때에는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으므로**, 성이 '황'이면 '황 보영'으로 쓸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띄어 쓸 수 있다**. 이 예외는 두 글자 성뿐 아니라 한 글자 성에도 적용된다. '황보영'은 성이 '황'이고 이름이 '보영'인 경우와 성이 '황보'이고 이름이 '영'인 경우로 나뉘어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이 '황'임을 분명히 하려면 '황 보영'으로 쓸 수 있으며, '쓸 수 없다'는 설명을 '쓸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성명이나 성,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는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군'은 호칭어이므로 성 '최'와 띄어 '최 군'으로 쓴다.

③ O: **호가 성명 앞에 놓이면 띄어 쓴다**. '백범'은 김구의 호이고 성명 '김구' 앞에 놓였으므로 '백범 김구'로 쓴다.

④ O: 호나 자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에 붙여 쓴다**. '난설헌'은 허초희의 호이고 성 '허' 뒤에 놓였으므로 '허난설헌'으로 쓴다. 호가 성명 앞에 놓인 '백범 김구'와는 결합하는 위치가 다르다.

NoteBase

문 7.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의 고전 서사문학에는,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다. 『홍길동전』, 『김원전』과 같은 소설뿐 아니라, 흔히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로 불리는 많은 설화들이 있다. 여기에서 지하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협과 혼란의 세계를 상징한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지상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고, 천상은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지하세계는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로 설정된다. '지하국'에 '대적'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그 괴물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악, 부정, 부조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국에서의 전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점은,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승리의 원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 해답은 의외로 소박하다. 주인공은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다. 예컨대 항상 몸에 지녔던 칼집의 가죽이나, 하찮은 풀로 만든 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서사는 영웅이 막강한 괴물을 처치하는 특별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지하국이 두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이며,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u>알</u> 수 있다.

①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성장에 있다.

② 고전 서사에서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③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④ 전통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비인간적 존재가 사는 천상 세계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괴물 퇴치는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하국은 삶의 위협과 혼란을 상징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인간의 성장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셋째 문단은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도 지하국을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로 본다. 따라서 이 서사의 주된 관심사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인간**에 있다. 선지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정의 실현의 의미를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② X: 글에서 다룬 서사는 천상적 존재와 현실적 인물 중 누가 도와주는지를 대비하지 않는다. 셋째 문단에서 주인공은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닌 것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승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실적 인물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지닌 것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한다고 고쳐야 한다.

③ X: 셋째 문단은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실체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서사이다.

④ X: 둘째 문단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는 현실의 공간인 지상,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인 천상,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지하세계를 구분한다. 따라서 글에 제시된 세계관은 현실과 천상만의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 **지상·천상·지하세계의 세 영역**으로 설명된다. 선지는 지하세계를 빠뜨렸다.

NoteBase

문 8. 윗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의 고전 서사문학에는,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다. 『홍길동전』, 『김원전』과 같은 소설뿐 아니라, 흔히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로 불리는 많은 설화들이 있다. 여기에서 지하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협과 혼란의 세계를 상징한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지상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고, 천상은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지하세계는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로 설정된다. '지하국'에 '대적'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그 괴물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악, 부정, 부조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국에서의 전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점은,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승리의 원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 해답은 의외로 소박하다. 주인공은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다. 예컨대 항상 몸에 지녔던 칼집의 가죽이나, 하찮은 풀로 만든 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서사는 영웅이 막강한 괴물을 처치하는 특별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지하국이 두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이며,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u>알</u> 수 있다.

① 자신의 방은 자기가 <u>알아서</u> 청소해야 한다.

② 나는 감기에 걸려서 음식 맛을 <u>알</u> 수가 없었다.

③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u>알아</u>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④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u>알기</u>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알다'는 서사를 통해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이해하다**라는 뜻이다. ④도 책을 읽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를 통해 '시험의 해답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각 문장에서 '알다'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인식 작용을 나타내는지 비교한다.

① '알아서'는 **스스로 판단하여**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자기 판단으로 방을 청소한다는 의미이므로, 서사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과 다르다.

② '음식 맛을 알다'는 **감각으로 맛을 느끼거나 식별하다**라는 뜻이다. 감기에 걸려 맛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과 다르다.

③ '자식을 전부로 알아'는 자식을 자기 삶의 전부라고 **여기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대상을 특정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이나 내용을 이해한다는 ㉠과 다르다.

④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는 **해야 할 일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다**라는 뜻이다. 책을 읽어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서사를 통해 삶의 문제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 ㉠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NoteBase

문 9.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 등장했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 그러나 같은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을 신나고 재미있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후, 전자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후자는 이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 명명한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위험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사건 때문에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 가변적 경험이다.

① 신체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핵심이다.
②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에 의해 좌우되는 능동적인 경험이다.
③ 감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④ 감정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같은 신체 반응을 겪어도 상황을 위험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을 느낀다. 글은 감정을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경험**으로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신체 반응을 조정하는 감정 관리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같은 신체 반응에도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들어, 감정의 형성에서 **주관적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② O: 마지막 문단에서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고 밝힌다. 놀이기구를 탈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동일한 반응도 위험으로 해석하면 '두려움',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으로 명명된다. 이처럼 감정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이라는 글의 중심 내용을 포괄한다.

③ X: 글에 제시된 설명의 순서를 뒤바꾸었다. 놀이기구의 움직임을 위험이나 재미로 **해석한 후에 감정을 명명한다**. 감정의 이름이 먼저 정해져 생리적 반응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④ X: 타고난 기질이 감정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글에 없다. 글은 같은 상황에서도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 하므로, 감정은 바꿀 수 없는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험**이다.

NoteBase

문 10. 윗글의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 그러나 같은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을 신나고 재미있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후, 전자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후자는 이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명명한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위험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사건 때문에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가변적 경험이다.

① ㉠: 나타났다
② ㉡: 이름 짓는다
③ ㉢: 깨닫는
④ ㉣: 바꿀 수 있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부여하는'은 상황에 의미를 **붙이거나 주는** 것이고, '깨닫는'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글은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감정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하므로, '깨닫는'으로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의 '등장했다'는 감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 **새롭게 나타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이 나타났다'로 바꾸어도 문맥의 의미가 유지된다.

② O: ㉡의 '명명한다'는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다. 글에서는 같은 신체적 반응을 다르게 해석한 뒤 각각 '두려움'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이름 짓는 것이므로, '이름 짓는다'로 바꿀 수 있다.

③ X: ㉢의 '부여하는'은 상황을 해석하여 그 상황에 의미를 붙이거나 준다는 뜻이다. 반면 '깨닫는'은 어떤 사실이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므로, **의미를 주는 행위와 의미를 아는 행위**가 다르다. 글에서는 같은 상황을 위험이나 재미로 해석하여 서로 다른 감정을 구성하므로, '깨닫는'이 아니라 '붙이는'이나 '주는'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O: ㉣의 '가변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글에서는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달리하면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므로, '가변적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경험'으로 바꾸어도 문맥에 어울린다.

NoteBase

문 11.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
(나)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
따라서 _____.

①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②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③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④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전제에서 식물은 마음이 있어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로봇은 마음이 없어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가)는 마음의 유무를 인간과의 감정적 소통 여부에 연결하고, (나)는 감정적 소통 여부를 도덕적 지위의 유무에 연결한다. 따라서 마음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를 갖고, 마음이 없으면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의 식물과 로봇에 이 관계를 적용한다.

① O: (다)에 따라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다. 여기에 (가)와 (나)를 차례로 적용하면 모든 식물은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고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반면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으므로,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고 도덕적 지위도 갖지 않는다.

② X: 식물과 로봇에 관한 결론이 뒤바뀌었다. (다)의 마음 유무를 (가)와 (나)에 적용하면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고, 로봇은 모두 갖지 않는다**.

③ X: 로봇에 관한 부분은 전제에서 도출되지만, 식물에 관한 부분은 도출되지 않는다. 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으므로 (가)에 따라 감정적 소통을 하고, (나)에 따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고쳐야 한다.

④ X: 식물에 관한 부분은 전제에서 도출되지만, 로봇에 관한 부분은 도출되지 않는다.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으므로 (가)에 따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고, (나)에 따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이다. 뒷산의 바위, 마을의 연못, 산사의 종 같은 증거물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설은 허구적이지만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에서는 전설의 어원을 'legere(읽다)'에서 찾기도 한다. 종교 의식 중에 낭독되는 ㉡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가 점차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하였다.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이 전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그렇지만 둘 다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백을 채운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냐, ㉢ 허구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설은 큰 범주에서 역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설은 공식적인 역사와 거리를 가진다.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였다. 과거의 공백에 특정한 시각과 욕망을 투영하여,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져 있던 일을 ㉣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공식적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전설의 전승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① 전설은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공식적인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역사적 이야기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출된다.

③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

④ 증거물이 사라진 후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설과 역사는 모두 과거의 공백을 이야기로 채우지만, 전설은 **허구적으로**, 역사는 **사실적으로** 구성한다. 과거의 일을 구성하는 방식이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둘째 문단에서 전설이 큰 범주에서 역사로 기능한 시기는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고 하였다. 선지의 '확립된 이후'는 '확립되기 이전'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첫째 문단에서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을 **전설**이라고 하였다. 선지는 전환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야기 양식을 바꾸어 서술하였다.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설이 산출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둘째 문단에서 역사와 전설은 모두 이야기를 만들어 과거의 공백을 채운다고 하였다.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역사는 **사실적으로 구성**하고,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과거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설과 역사가 구별된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④ X: 글에는 **증거물이 사라진 후라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진 일에 자신들의 시각과 욕망을 투영하여 목소리를 드러냈다. 증거물의 소멸이 아니라, 공식적 역사에 담기지 않은 일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3. 윗글의 ㉠ ~ ㉣ 중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이다. 뒷산의 바위, 마을의 연못, 산사의 종 같은 증거물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설은 허구적이지만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에서는 전설의 어원을 'legere(읽다)'에서 찾기도 한다. 종교 의식 중에 낭독되는 ㉡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가 점차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하였다.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이 전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그렇지만 둘 다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백을 채운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냐, ㉢ 허구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설은 큰 범주에서 역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설은 공식적인 역사와 거리를 가진다.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였다. 과거의 공백에 특정한 시각과 욕망을 투영하여,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져 있던 일을 ㉣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공식적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전설의 전승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은 전설의 기원이 된 **신성한 기적 이야기**를 가리킨다. 글에서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 이야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설이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각 표현이 문맥에서 전설 자체를 가리키는지, 전설이 형성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가리키는지 비교해야 한다.

㉠: 사건을 바위·연못·종 같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전설**이다. 첫 문장의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설명을 풀어 쓴 표현이다.

㉡: 종교 의식 중에 낭독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기적 이야기로, **전설로 전환되기 이전의 신성한 이야기**이다. 뒤이어 이 이야기가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하였다고 했으므로, 전설 자체와는 구별된다.

㉢: 과거의 공백을 **허구적으로 구성하여 채우는 전설**이다. 바로 앞에서 역사는 과거의 일을 사실적으로,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고 대비했으므로 이 표현은 전설을 가리킨다.

㉣: 공식적인 역사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진 일에 **전설 향유층의 시각과 욕망**을 담아 만든 전설이다. '자신들'은 앞 문장의 전설 향유층을 가리키며, 이들이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설을 만들고 전했다는 뜻이다.

㉠·㉢·㉣은 전설 자체를 가리키지만, ㉡은 전설로 변하기 이전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이질적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광야」는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로 시작된다. 이 시의 해석과 관련해서 1연 3행의 시구,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들렸으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대체로 이를 수사적 의문 ‘들렸겠는가?’로 파악하여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 그런데 “들렸으랴”가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이며, 이 시구를 ‘들렸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닭이 울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과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갈렸다. 입장에 따라 “어데”의 의미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선가’라는 뜻이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에서 쓰인 ‘어디’와 같이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감탄사로 해석된다. “닭”에 대해서도 두 입장은 해석을 달리한다. 닭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논자들에게 닭은 소리를 내어 우는 동물을 의미할 뿐이다. 이들에게 시의 첫 연은 아무 소리 없는 정적 그대로의 광야를 나타낸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 어찌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겠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실제 동물로서의 닭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서의 닭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의 첫 연은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어떤 지고한 소리가 울리고 있는 광야를 그려 낸다.

① “어데”를 ‘어디선가’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② 1연 3행을 수사적 의문으로 보는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③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를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파악한다.

④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개벽의 순간에 광야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 파악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는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입장**의 해석이다.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소리를 내어 우는 동물로 보고, 개벽의 광야를 **아무 소리 없는 정적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에서 닭이 울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어데'를 **'어디선가'**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② O: 수사적 의문은 실제로 답을 요구하기보다 의문 형식으로 뜻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들렸으랴'를 '들렸겠는가?'로 보는 입장은 **들리지 않았다는 부정의 뜻**을 읽어 낸다. 지문은 이 입장이 첫 연을 아무 소리 없는 정적 그대로의 광야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③ O: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입장은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때 닭은 실제 동물 자체보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하늘이 처음 열리는 상황과 연결하면, 닭 울음소리는 천지의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이해된다.

④ X: 닭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소리를 내어 우는 동물로 볼 뿐이며, 첫 연의 광야를 아무 소리 없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닭을 개벽의 순간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 보는 것은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지의 '부정하는 입장'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찾아가는 민원 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방문이 확정된 사업장은 어디죠?
을: 방문 후보인 사업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병: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방문한다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정: 그리고 행사 계획상 _____.
갑: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전통시장은 반드시 방문하겠네요.

① 전통시장에 방문한다면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②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한다면 다문화센터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③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해야 합니다
④ 다문화센터는 방문하면서 아동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민도서관에 방문하지 않으므로, 두 곳 중 **적어도 한 곳을 방문**하려면 다문화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 아동돌봄센터에는 방문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하면 병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어 전통시장 방문이 도출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을의 말에 따르면 아동돌봄센터와 주민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는다. 병의 말은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음'과 '다문화센터에 방문함'이 모두 성립하면 전통시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다. 첫 조건은 이미 충족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다문화센터 방문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 빈칸: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해야 한다'는 두 곳을 모두 방문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한다. 주민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으므로 다문화센터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돌봄센터에는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는 방문한다는 병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전통시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 조건을 제시한 말이 ③이다.

①: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주민도서관도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주민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으므로, 이 말을 추가하면 **전통시장에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갑의 결론과 어긋난다.

②: 아동돌봄센터를 방문할 경우 다문화센터도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말만으로 **다문화센터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반드시 방문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④: 다문화센터를 방문하면서 아동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하므로, '다문화센터를 방문하면 아동돌봄센터도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동돌봄센터에는 방문하지 않으므로 **다문화센터에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병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전통시장 방문을 도출할 수 없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당신이 용을 보았고 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환각을 보고 상상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의 존재 여부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며, 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감각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거나, 우리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거나, 입증할 논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믿는 것조차 합리적일 수 없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논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의 합리성을 위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은 옳지 않다. 만약 그 입장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참이라면,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② ㉠이 거짓이라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③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 약화된다.

④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사례에는 **입증할 논증이 있으므로**, 글에서 비판하는 입장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믿음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세 조건 중 하나를 갖춘 믿음의 사례는 이를 강화하지 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글에서 비판하는 입장은 믿음이 합리적이려면 감각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 입증할 논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당연한 상식까지 비합리적이 되는데, 그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장을 부정하는 ㉠을 제시한다.

① O: ㉠에 따르면 세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기준은 옳지 않다. 따라서 용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② O: ㉠이 거짓이라면 글에서 비판하는 기준이 옳다는 뜻이 된다. 지문에 따르면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믿음이나 눈을 감아도 친구가 앞에 있다는 믿음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기준에 따를 때 이러한 상식적 믿음조차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O: 글쓴이는 상식적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기존 기준을 부정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기존 기준을 배척하는 근거가 약해진다**. 따라서 그 근거에 의존하는 ㉠도 약화된다.

④ X: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다면 세 조건 중 '입증할 논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이때 그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기존 기준과도 양립하는 사례**이므로, 그 기준을 부정하는 ㉠을 강화하지 못한다. ㉠을 뒷받침하려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믿음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

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②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된다.
③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④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으므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리 인상과 시중 통화량 동결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며,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때 '않거나'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되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첫 번째 진술은 금리 인상과 시중 통화량 동결이 함께 성립할 때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는 조건만 제시한다.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므로, **감소된다고도, 감소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② X: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그러면 두 번째 진술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세 번째 진술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와 모순된다. 따라서 **금리 인상과 시중 통화량 동결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③ X: 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것과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 것이 모두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리는 인상되지만 시중 통화량은 동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첫 번째 진술의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실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며,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O: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용하면 소비 심리는 위축되지 않는다. 이처럼 'A이면 B이다'에서 'B가 아니다'를 근거로 'A가 아니다'를 이끌어 내는 추론을 대우에 의한 추론이라고 한다.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진술에 적용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된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A이고 B이다'의 부정은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이므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반드시 성립한다. 이때 '거나'에는 두 사실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모두 17자인데 초성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음운 이론에서는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었다.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즉 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순음 'ㅁ'은 '입 모양'을, 치음 'ㅅ'은 '이 모양'을,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각각 본떴다. 그다음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가획의 원리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그 소리가 더 세어진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ㄴ→ㄷ→ㅌ', 'ㅁ→ㅂ→ㅍ', 'ㅇ→ㆆ→ㅎ' 등이 있다. 이때 획이 더해져 만들어진 초성자는 기본자와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그런데 가획의 원리로 모든 초성자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ㄹ'은 'ㄴ'에, 'ㅿ'은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ㆁ(옛이응)'은 아음이지만 기본자 'ㄱ'과 글자 모양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 이들 'ㄹ, ㅿ, ㆁ(옛이응)'을 이체자라고 한다.

① 'ㆁ(옛이응)'과 'ㅎ'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② 'ㅿ'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③ 'ㄷ'보다 'ㅌ'이 소리가 세고, 'ㅍ'보다 'ㅂ'이 소리가 약하다.

④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 기본자를 정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가 잘못되었다. 지문에 따르면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의 구분은 당시 음운 이론에 이미 있었으며, 훈민정음 창제 때는 **기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자를 만들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지문에서 'ㆁ(옛이응)'은 아음이라고 하였다. 'ㅎ'은 후음의 기본자 'ㅇ'에 획을 더하는 'ㅇ→ㆆ→ㅎ'의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만든 글자는 기본자와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따라서 **'ㆁ'은 아음, 'ㅎ'은 후음**이므로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② O: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ㅅ'이며, 지문에서는 'ㅿ'을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다. 다만 'ㅿ'은 획을 더한 것이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없는 이체자**이다. 선지는 획을 더하여 만든 사실만을 말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③ O: 지문에 제시된 가획 과정은 'ㄴ→ㄷ→ㅌ'과 'ㅁ→ㅂ→ㅍ'이다. 이 과정에서는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어지므로** 'ㄷ'에 획을 더한 'ㅌ'은 'ㄷ'보다 소리가 세다. 같은 이유로 'ㅂ'에 획을 더한 'ㅍ'은 'ㅂ'보다 소리가 세므로, 'ㅂ'은 'ㅍ'보다 소리가 약하다.

④ X: 지문은 당시 음운 이론에서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으로 나누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때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ㄱ, ㄴ, ㅁ, ㅅ, ㅇ'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는 **'이미 있던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로 고쳐야 한다. 새로 만든 것은 기본자이며, 그 바탕이 된 분류 체계는 기존의 것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레르기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신체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오인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흔히 개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생 습관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 면역 체계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렵·채집 시절부터 공생해 온 '오랜 친구들'이라 불리는 유익한 미생물의 도움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컴퓨터 학습 시스템과 유사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논밭과 동산이 있는 자연환경인 전원에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 온 유익한 공생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면역 체계에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는 햇빛이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발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나 목욕 같은 위생 습관은 가정 내 미생물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의 지나친 위생 습관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과 격리된 도시 생활은 이러한 노출을 막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①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개인 위생용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② 동일한 전원에서 자란 두 집단의 아이들을 비교할 때, 거주지의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③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유사한 아이들을 비교할 때, 전원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

④ 어린 시절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된 후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위생 상태가 유사한 조건에서 전원 생활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에 대한 노출**이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를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글의 논지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과의 접촉이 면역 체계를 발달시키며, 자연과 격리된 도시 생활은 이러한 접촉을 막아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단순히 환경이 불결하거나 질병을 앓는 것이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① X: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위생용품 소비량이 많을수록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는 **위생용품 소비량과 발병률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러나 유익한 공생 미생물에 대한 노출이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글이 강조하는 요인은 위생용품 사용량이 아니라 자연환경 속 공생 미생물과의 접촉이다.

② X: 동일한 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위생 상태에 따라 발병률이 달라진다는 결과는 **비위생적인 환경이 알레르기를 줄인다**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방향이다. 글은 그러한 통념을 비판하고, 면역 체계 발달의 원인을 유익한 공생 미생물과의 접촉에서 찾는다. 따라서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는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③ O: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유사하다**는 조건은 발병률 차이를 단순히 위생 상태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이 조건에서 전원 생활 기간이 긴 아이들의 발병률이 낮다면, 전원에 존재하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던 것이 알레르기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이는 공생 미생물이 면역 체계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여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는 글의 설명과 연결된다.

④ X: 어린 시절 알레르기를 앓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성인기 발병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알레르기를 앓은 경험**은 유익한 공생 미생물에 노출된 경험과 같지 않으며, 이 결과만으로 두 집단의 공생 미생물 노출 정도를 알 수 없다. 글의 논지를 강화하려면 질환 경험 자체가 아니라 유익한 공생 미생물과의 접촉이 면역 체계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결이 필요하다.

NoteBase

문 20.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한 줄 서기보다는 두 줄 서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혼잡을 줄일 수도 있어. 개인의 이동 속도보다 전체적인 효율을 우선해야 해.
승현: 물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 그런데 두 줄로 서면 급한 사람은 빨리 이동하기 어렵잖아. 이동이 급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가 효율보다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범주: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이 고려하는 기준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어. 그런데 혼잡한 시간대에는 두 줄로 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시라: 안전도 고려할 중요한 기준이지. 한 줄 서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두 줄 서기를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승현: 그러고 보니 에스컬레이터에 한쪽으로만 설 경우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에 부담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겠네.
범주: 안전이 중요하니까 혼잡할 때는 두 줄 서기를 해야겠지. 하지만 혼잡하지 않을 때에는 이동이 급한 사람을 배려해서 한 줄 서기를 해야지.

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시라와 승현은 동의한다.
② 혼잡 정도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범주는 동의한다.
③ 시라와 승현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④ 안전 면에서는 두 줄 서기가 낫다는 점에 대해 시라, 승현, 범주는 모두 동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승현은 배려를 우선할 때 한 줄 서기를 지지하다가 안전을 우선하면서 두 줄 서기로 입장을 바꾼다. 반면 시라는 효율과 안전을 모두 두 줄 서기의 근거로 삼으므로, **줄 서기 방식을 바꾸자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시라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주변의 혼잡도 줄어든다는 이유로 두 줄 서기를 주장한다. 승현도 '물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라고 인정한다. 승현이 처음에 한 줄 서기를 지지한 것은 효율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배려를 효율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② O: 범주는 혼잡한 시간대에는 두 줄 서기가 효율적이지만 이용자가 적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 발언에서도 **혼잡할 때는 두 줄, 혼잡하지 않을 때는 한 줄**로 서자고 한다. 혼잡 정도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X: 승현은 처음에는 급한 사람을 배려하는 한 줄 서기를 지지하지만,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받아들인 뒤 항상 두 줄로 서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반면 시라는 처음에는 효율을, 나중에는 안전을 근거로 들면서 **일관되게 두 줄 서기를 주장한다**. 따라서 기준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바꾸는 데 시라와 승현이 모두 동의한다고 할 수 없다. 승현은 우선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방식을 바꾸었고, 시라는 기존 방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한 것이다.

④ O: 시라는 두 줄 서기가 넘어지는 사고를 줄인다고 하고, 승현은 한쪽으로만 설 때 생기는 구조물의 부담과 고장 위험을 들어 두 줄 서기를 지지한다. 범주도 안전을 이유로 혼잡할 때 두 줄로 서야 한다고 하므로 **두 줄 서기의 안전상 이점**을 인정한다. 범주가 혼잡하지 않을 때 한 줄 서기를 주장하는 것은 급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기 때문이며, 안전상 이점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NoteBase